

97세 '인민예술가' 전화, 장춘영화제작소 방문

중국조선족민속원

“여기는 제 영화 꿈이 시작된 곳입니다!”

무형문화유산 관광 도입 '5호' 우수사례에



지난 8월 23일, 장춘영화제작소(이하 '장영') 창립 80주년을 맞아 '인민예술가'로 존경받는 저명한 영화예술가 전화(田华)가 장영을 방문했다. 97세 고령인 전화는 장영 옛터박물관에 들어서며 감격에 겨워 말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제 영화 꿈이 시작된 곳입니다.”

올해는 중국 영화 탄생 120주년이자 장영이 중국 영화 사업의 요람으로 80년간 뿌리내려온 중요한 이정표이다. 한달여전, 습근평 총서기는

전화 등 8명의 영화예술가들에게 진 필 서한을 보내 문화적 자신감을 굳건히 하고 생활의 비옥한 토지에 뿌리내리고 시대를 노래하고 인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라고 격려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8명의 예술가들이 모두 '새 중국 영화 사업의 요람'으로 불리는 장영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장영에서 일했거나 창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1951년, 영화 《백모녀》(白毛女)의 '희얼'(喜儿) 이미지가 모두의 마

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희얼' 역을 맡은 배우이자 처음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은 전화는 이로부터 그의 예술 인생을 시작했다. 73년후인 2024년 9월 29일, 전화는 '인민예술가' 국가 명예칭호를 받았다.

이날 장영옛터박물관에서 전화는 '전화-영화예술 인생' 전시회의 개막식에 참여했다. '인민예술가' 국가 명예칭호를 받은 자신의 사진을 보는 전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물관 문화전파원 서가림은 감동적인 순간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화선생님이 사진 속의 자신과 ‘눈물로 대면’하는 순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박물관을 참관하는 동안 전화의 일거수일투족은 현장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오래도록 전시 패널에 걸린 옛 사진들을 바라보았고 귀중한 단체사진을 만지며 사진 속 사람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전화는 그중 한명의 소녀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바로 나예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현장 분위기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했다. 영화 《당의 딸》(党的女儿)은 그녀에게 삶의 방향을 찾아주었다. 바로 영원히 당의 좋은 딸이 되는 것이었다! 영화 스틸 사진(电影剧照) 앞에서 전화는 주목을 굳게 쥐고 영화 속 리옥매(李玉梅)의 고전적인 동작을 재현했다. 그녀의 초심과 힘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수십년이 지났지만 저는 저를 키워준 장영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의 성장은 길림의 지원과 장영의 배양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길림과 장영은 저의 집입니다. 이번에 저는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전화의 진심 어린 소감이었다.

이날 저녁, 제 20회 중국장춘영화제 개막식에서 전화는 3분간의 진솔한 연설을 했다. 전화는 연설을 통해 80세 장영에 생일 축하를 전하고 새 중국 영화 사업 80년의 발전에 진심 어린 축원을 보냈다. 현장에서 열렬한 박수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이는 한 인민예술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중국 영화 사업의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한 다함없는 축복이기도 했다.



최근, 중국무형문화유산보호협회는 2025년 무형문화유산 관광 도입 '5호'(五好) 우수사례 목록을 발표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조선족 민박'과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혁신적인 모델로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이 목록에 성공적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몇년간 '무형문화유산+관광'은 연변 문화와 관광 융합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조선족민속원은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중 하나로 조선족 전통 의상, 전통 떡 만들기 기예, 막걸리 빚기 기예 등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와 더불어 조선족 전통 주거 형태, 그네, 널뛰기, 씨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다채로운 무형문화유산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족 전통 복장 체험 프로젝트의 성장에 따라 사진촬영, 페이

크업, 라이브 커머스 등 관련 산업이 파생되었으며 '조선족 공주' 체험형 소비와 '조선족 민박', '살아있는 박물관'은 연변 관광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올랐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작업을 강화해왔다. 무형문화유산 목록 체계를 꾸준히 구축·완비하고 대표 전승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생태문화기지를 조성하고 문화 전승 혁신 플랫폼과 무형문화유산 전시 확산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관련 이론 연구를 추진하여 중화문화에 대한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민족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며 민족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는 풍부한 문화 자원과 실질적인 경로를 제공했다.

/ 글 주동기자 / 사진 김파기자

드라마 《귀대》

소인물 군상이 그려낸 생생한 항전 이야기

〈오색아리랑〉, 다채로운 민족문화 선보여

올여름, 연변가무단에서 알심 들여 창작한 문화관광 공연력작 〈오색아리랑〉이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7월부터 8월까지 〈오색아리랑〉은 총 27회 공연되었는데 약 1만 5,000명의 관객을 흡인하며 연변 가무의 예술적 매력을 널리 자랑했다.

전체 공연은 '오색변강', '록색의 아름다움', '분홍의 꿈', '순백', '푸른 여운', '붉은 혼', '금수화장'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연변의 자연 경관, 민족문화, 변경정취, 눈과 얼음의 운치 및 흥색문화를 '오색' 서사 구조에 절묘하게 녹여냈다. 가무를 언어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연변 문화의 긴 그림을 엮어냈으며 관객들에게 시청각 향연과 매력이 독특한 예술의 향연을 선사하며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 분발하여 함께 번영을 창조하는 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생동



〈오색아리랑〉 공연 현장

하게 보여주었다. 공연은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 북경에서 온 관객 방홍하는 공연을 관람한 후 감동을 감추지 못

해 인터넷 플랫폼에 긴 글의 소회를 공유했다. 그녀는 비록 이미 영상 작품을 통해 좀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조선족의 전통을 알고 있었

지만 현장 공연이 가져다준 감동은 여전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경쾌한 장고의 리듬, 그림처럼 활짝 핀 진달래, 정취가 농후한 떡 치는 장면, 조선족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 의지하는 감동적인 그림... 이러한 선명한 민족 요소들이 한화폭에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관객들을 조선족 일상생활의 진실한 정경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호남성에서 온 관객 조흥연도 “공연 효과가 매우 감동적이고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말했다.

연변가무단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오색아리랑〉은 9월 3일, 5일에 이어 6일, 7일 저녁 19시 30분에 연변로동자문화궁에서 공연된다. 관객들은 현장 공연을 통해 중화민족 다원문화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 주동기자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길림성 백산에서 촬영된 드라마 《귀대》(归队)가 8월 25일 CCTV-8 황금 시간대와 텐센트(腾讯)에서 동시 방영을 시작했다.

이 드라마는 국가라지오텔레비존방송총국의 지휘 아래 중앙텔레비존방송국과 텐센트 영상(视频)이 주관하여 제작하고 무극문화화 공동 제작을 맡았으며 북경시라지오텔레비존방송총국, 후퉁강성당위 선전부, 길림성당위 선전부, 료녕성당위 선전부가 함께 제작에 참여했다.

보았다” 등 시청자들의 문평은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됐다.

이 드라마는 전쟁 속의 인간성과 감정을 발굴하여 소대장 로장산, 2반장 당덕원, 명사수 전소귀, 위생원 라화얼, 전사 고운화와 민복경 등 항일련군 전사들의 성장사를 깊이있게 그려냈다.

이 드라마는 동북항일련군의 14년간의 고난에 찬 항일투쟁을 서사적 배경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대부대와 련락이 끊긴 항일련군 소부대가 동북 대지에서 삶과 죽음, 피와 고통의 시련 속에서 전우에 대한 약속,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필승의 신념을 바탕으로 완강하게 일제에 항거하며 고뇌와 방황, 각성 끝에 마침내 행동과 정신의 '귀대'를 이루는 이야기를 그렸다.

실제 역사에 대한 경외심과 간고한 환경에서 열심히 촬영에 임한 우수환 배우를 덕분에 드라마는 방영되자마자 빠르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리얼하다”, “감동적이다”, “몰입감이 굉장하다”,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백산흑수 속의 열혈과 신앙을

제작진은 장백산에 깊이 들어가 실경 촬영을 진행했으며 인물의 상처 흉터 형상, 소도구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캐릭터의 정체성과 경험, 그들이 처한 환경 변화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여 몰입감 있는 항전 세월을 창조했다.

《귀대》는 영상의 형식으로 백산흑수에서 영웅히 싸우다가 희생된 영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명으로 해석한 '귀대' 정신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이는 역사를 기억하고 영웅을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준다.

/ 중국신문넷

길림성 문화보물— 삼채유 도벼루



료나라인물이야기 삼채유 도벼루

지금도 새 학기만 되면 각종 문구를 준비하듯 고대의 서생들 역시 학업에 필수적인 문구를 갖추느라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붓, 먹, 종이, 베투

루로 대표되는 '문방사보'는 그들에게 있어 오늘날의 필기구보다 더 소중한 학습도구였다. 시대를 막론하고 배움을 시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문방사보》(文房四寶)에는 “네 가지 보물중 베투가 으뜸이다.”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여기서 베투의 핵심적인 지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먹을 갈아 먹물을 내는 도구인 베투는 옛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빠질 수 없는 '문구 파트너'였다.

최초의 베투는 단지 갈아서 평평하게 만든 석기에 불과했지만 한(漢)나라에 이르러 조각된 돌 뚜껑이 추가되고 안정적인 받침대가 생겼다. 위진(魏晉)부터 수(隋)나

라까지는 원형 도자기 베투가 등장했으며 세계의 받침대에서 여러개의 받침대로 바뀌어 생동감을 더했다. 기형(箕形) 베투는 당(唐)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형태로 키(簔箕) 모양으로 되었으며 베투 바닥 한쪽은 땅에 닿고 한쪽은 받침대로 지탱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 이르러 베투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투는 단순한 문구를 넘어 책상 위의 예술품이 되었고 귀족과 문인, 묵객들의 품격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다.

쌍료시 정가툰박물관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긴 '문구가 소장되어있다. 바로 료(辽)나라인물이야기 삼채유 도벼루(辽人物故事三彩釉陶碗)

이다. 전체 높이는 9.5센치메터, 구경과 바닥 지름은 모두 18.4센치메터이며 팔각형의 직벽통(直壁筒) 형태의 받침이 있어 매우 정연하다. 몸체에는 노랑과 초록 유약 색상이 어우러져있고 네개의 초록 유약 사각형과 네개의 노랑 유약 사각형이 교차로 배열되어있다. 가장 절묘한 점은 각 사각형 테두리마다 '벌로 고기를 먹이다'(罚人吃肉)는 인물 이야기가 돌출새김되어있는데 인물의 자세도 여전히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문화재는 박물관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료나라 문화와 생활을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 중국길림넷